

# 한국실용댄스의 고등교육 현황 분석 - 고등학교 및 대학의 분석을 중심으로 -

장요정\*, 조승현\*\*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e-mail:puppyg8340@naver.com, \*\*meducho95@naver.com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in Korean Practical Dance - Focused on High School and University Analysis -

Yo-Jeong Jang\*, Seung-Hyun Cho\*\*

\*Dep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CAU

\*\*Dept. of Cultural Content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요약

국내에서 K-POP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실용 댄스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 중 가장 널리 인식되고 있는 K-POP의 경우 과거 중독성 있는 위주의 가사 전달이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댄스와 퍼포먼스에 중심점을 두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독특 크루(Dokteuk Crew)’, ‘Just Jerk’ 등의 국내의 여러 댄스 크루들이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American God Talent”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및 “2019 Body Rock Dance Competition”에서의 공연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써 한국의 댄스가 과거 비보이의 영광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용댄스 분야는 음악 분야를 비롯 여타 대부분의 예체능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규적인 교과과정 이외의 Field에서의 경험과 실력의 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이는 다시 해석해보자면, 정규 교과과정이 불분명하고 청소년 및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양성 과정이 부족하다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적인 노력과 역량의 표출이 중요시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의 조성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를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정규 교과 프로그램으로써 미래의 댄서(Dancer)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은 추후 한국 실용댄스 분야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개인의 열정이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공적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구축하는 것은 관련분야 학자 및 현직 종사자들의 의무라 하겠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 국내 댄스전공 개설 대학은 조사 결과 총 31개 대학이 있었다. 이는 총 4년제 대학 6개 학교, 전문대학과정 11개 학교, 학점은행제 14개 과정이었다. 결국 후학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실무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인터뷰 결과 실제 학교에서도 실용 댄스와 관련된 지도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등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댄스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 구축을 위한 노력은 크게 보여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필자는 이번 교육현황 분석으로 통해 중등 및 고등 교육 체계에서 한국의 실용 댄스 영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